지방-수도권 수시모집 양극화 뚜렷

주요 대학 2023학년도 수시 경쟁률 전남대 6.3대1·조선대 5.2대1···치의예 등 의·약학·보건은 강세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광주 등 지역 주 요 대학 경쟁률은 하락한 반면 서울 주요 대학 경쟁 률은 상승하는 등 양극화 추세가 나타났다.

19일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전남대학 교와 조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6.3대1과 5.2대1을 각각 기록했다.

전남대는 지난해 8.09대1보다 다소 낮아졌고 조 선대도 지난해 5.34대1에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울 시립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대부 분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와 세종대의 논술전형 경쟁률이 각각 28.53대1(작년 24.31대1), 20.87대1 (작년 15.4대1)이고 경희대(서울) 27.23대1(작년 27.18대1), 서울시립대 17.97대1(작년 17.09대1), 한양대(서울) 26.43대1(작년 25.67대1), 이화여대 12.86대1(작년 11.01대1) 등이다.

반도체 관련학과에 지원한 인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인

재 양성 정책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반도체 학과 선발 10개 대학 경쟁률은 18.1대 1로, 2022학년도 7개 대학의 17.6대1보다 높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소신·상향 지원하는 추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2024학년도 이후 수험생이 대폭 감소하면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 대학가에서도 당장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올해 수험생이 1만 6000명 가랑 감소해 경쟁률이 소폭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3만6000명 줄어드는 내년부터는 일부 미달학과들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대 신입생 감소 추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지역 대학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지역 대학 학과별 경쟁률에서는 의·약학, 보건계열 강세가 올해도 여전했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학

생부 교과 일반전형은 5명 모집에 191명이 지원해 38.20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선대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의 경우 의예과 25.2대1, 치의예과 38.8대1, 약학과 17.7대1의 경 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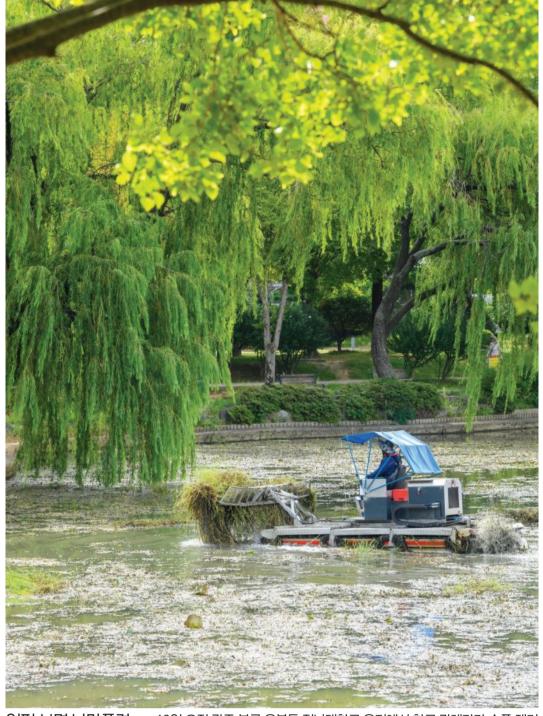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은 의예과 13.4대1, 치 의예과 21.3대1, 약학과 14.9대1이다.

올해 처음으로 의학 계열을 모집하는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의 경우 의예과 24.4대1, 치의예과 25.7 대1, 약학과 23.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대의 경우 간호학과가 6.79대1로 정원 내 전형(일반학생+지역학생)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학생전형 학과별 경쟁률에서도 간호 학과가 11대1로 두번째로 높았다.

호남대 물리치료학과에는 38명 모집에 443명이 지원해 11.7대1, 임상병리학과 9.4대1, 간호학과 8.5대1, 응급구조학과 6.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부대도 물리치료학과가 13.27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얼핏 보면 낭만풍경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에서 학교 관계자가 수풀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3년 연속 '세계 최고 암병원'

뉴스위크 선정…국립대병원으론 서울대병원과 2곳 뿐

화순전남대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암 치료 잘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뉴스위크가 시행한 '2023 임상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종양학(Oncology) 부문 평가에서 전 세계상위 300대 병원 중 136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42위보다 6계단 상승한 순위다.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국내 14개 병원 가

운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유일하며, 국립대병원 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두 곳뿐이다.

2004년 개원한 화순전남대병원은 700병상 규모 의 전남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대학병원 중 전 국 유일의 암 전문 상급종합병원이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보다 암환자 5년 생존율이 높고, 병상당 암 수술건수 전국 1위, 6대암 치료 최 고등급 등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 전국 최고, 환자경험평가 국 립대병원 중 최고 수준, 전국 최대 규모 치유의 숲 보유 등 환자중심의 자연친화 병원으로 각광을 받 고 있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이 3년 연속 뉴스위크의 '월드 베스트 암 병원'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의료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암·면역세포 치료, 첨단 정밀의료 등 최고의 암 병원을넘어 K-바이오 의료의 중심에서 미래의료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ae@kwangju.co.kr

"광주 남구 보건소장 비의료인 임용 반대"

광주시의사회 "지역보건법 위배"…남구 "절차상 문제없다"

광주시 남구가 공석이었던 보건소장에 비의료인 출신을 임용한 것을 두고 광주시의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광주시의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보 건법에 위배되는 남구청의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많은 의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됐는데 보건소장 임명에 공모 절차 또한 없 었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남구가 보건직 공무원 A씨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다'며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구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의료인을 임용할 수 있다"며 "업무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비의료인을 임용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5급 일반의사를 뽑기 위해 공고를 6개월 넘게 20회 이상 올렸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며 "보건소장의 공백을 신속히 보강해야 했고 보건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건행정직렬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는 의사회가 요청한 시정에 대해 "행정 절차법상 이미 승진이 이뤄진 후 직원에 어떤 후속 조치나 시정을 할 수 없다"며 "감사담당관실에서 사 전 감사 컨설팅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 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무등산 정상 10월 8일 개방

내달부터 '탐방로 예약제'

10월 8일 무등산 정상이 개방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지리산 구룡계 곡등 7개 탐방로를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본 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등산 목교~서석대, 장불재~군부대 구간은 다

음달 8일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 7000명에게만 개방된다. 무등산 정상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돼 있어 다른 탐방로와는 달리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지리산 구룡계곡(350명)은 10월 한달 간, 월출 산 광암터(230명)는 10월 15일~11월 13일, 내장 산 서래봉(520명)은 10월 21일~11월 30일까지 운 영된다.

구간별 탐방로 예약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1인당 최대 10 명까지 할 수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전남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1000억원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5156건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99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 월까지 전국에서 총 17만1122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720억원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2290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피해액은 538억원을 기록했다. 연 도별 발생 현황은 2017년 207건, 2018년 205 건, 2019년 358건, 2020년 1014건, 2021년 624 건이다.

전남에선 286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은 460억원에 달했다. 2017년 445건, 2018년 407건, 2019년 616건, 2020년 406건, 2021년 664건 등 피해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년여동안 서울이 4만865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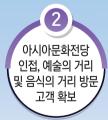
(피해액 973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4만2956건(피해액 7832억원), 인천 1만617건(1630억원), 부산 9211건(피해액 1604억원)순이다.

경찰청이 수기로 자료를 취합·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편취수법별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계좌 이체형 7만6183건, 대면 편취형 5만2266건, 상품권 등 요구형 1만512건, 피싱 혼합형 4239건, 배송형 1127건 등으로 분류됐다. 과거에는 현금을특정 계좌로 옮기는 계좌 이체형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돈을 받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입금하는 대면 편취형이 늘고 있다.

조 의원은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만큼 현장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사옥임대문의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락카비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 탁카미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사 두도)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中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中

